

# 『遊藝志』弄葉의 선율 형성

林 美 善

(서울대 국악과 강사)

## 〈目 次〉

I. 머리말	IV. 선율 비교
II. 선행연구의 검토	V. 맺음말
III. 농엽의 형성 시기	참고악보

## I. 머리말

가곡의 樂은 弄보다 앞서 고악보에 출현한다. 현전 古樂譜 가운데 樂이 처음으로 고악보에 나타나는 것은 「漁隱譜」의 羽調樂時調로 현행의 界樂에 해당한다.<sup>1)</sup> 그리고 弄은 어은보보다 후대인 「遊藝志」에 와서 弄葉으로 출현하며 현행의 弄葉에 해당한다.

어은보의 우조낙시조와 그 보다 후대에 출현하는 유예지 농엽의 선율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 이러한 공통 선율은 어은보와 유예지에서 뿐만 아니라 강외금보, 삼죽금보 등의 고악보 및 현행에서도 발견되며 다만 그 양상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 정도이다.

이렇게 우조낙시조와 농엽이 보유하고 있는 공통 선율의 관계는 「江外琴譜」의 啓眠樂時調(현행 界樂)에 보이는 “三章以下并與啓弄(현행 弄葉)同”의 각주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두 곡이 선율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농엽의 성립에 대한 우조낙시조의 관여를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두 곡이 공유

1) 김우진 「가곡 계면조의 농과 락에 관하여」(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4) p. 2에서 어은보의 우조시조가 현전 고악보 중에서 가장 먼저 출현하는 것으로 현행 계락에 해당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김경희 「어은보소재 우조낙시조 연구」(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3)에서 다루어졌다.

하고 있는 공통 선율은 농엽이 그보다 앞서 출현한 우조낙시조로부터 배태되었으리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농엽 형성에 대한 추정은 선행연구인 김영옥의 ‘유예지 소재 농엽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된 견해와 많은 차이가 있다. 김영옥에 따르면 농엽의 형성은, 그 1장은 유예지의 界初葉과 界三葉에서, 2장 이하는 界三葉에서 나온 것으로 논의되었다.<sup>2)</sup> 여기서 농엽 2장 이하의 선율이 계삼엽에서 나온 것이라는 견해의 도출은 유예지 계삼엽에 보이는 “自二章以下與元弄以下全”의 각주에 의거한 것이다. 김영옥은 유예지의 각주에서 제시한대로 계삼엽 2장 이하와 농엽 2장 이하의 선율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농엽 2장의 선율이 계삼엽에서 나온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문제점은 김영옥이 유예지에 보이는 “自二章以下與元弄以下全”의 각주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각주의 설명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농엽 2장 이하가 계삼엽의 선율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한 데에 있다.

유예지 각주의 내용에 대한 사실성 여부를 살피기 위하여 선율을 비교해 보면, 농엽 2장 이하와 계삼엽 2장 이하의 선율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sup>3)</sup> 이것은 유예지의 농엽과 계삼엽 2장 이하의 선율이 서로 같은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영옥의 농엽 형성에 대한 견해는 설득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유예지와는 설명이 다른 「江外琴譜」의 계락과 평롱간의 同旋律에 대한 각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또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고에서는 어은보의 우조낙시조와의 관련양상을 고려하지 않고 유예지 농엽의 형성을 살펴본 김영옥의 견해를 검토하고 나아가 농엽의 형성이 어은보의 우조낙시조를 근간으로 하고 그 위에 부분적으로 삭대엽 1, 2, 3의 선율을 취해서 형성된 것임을 밝혀보고자 한다.

2) 김영옥: 「유예지 소재 농엽 형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8)

3) 이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II장을 참조할 것

## II. 선행연구의 검토

김영옥이 제시한 유예지 농엽 형성에 대한 연구의 문제점은 김영옥이 인용한 유예지의 각주 내용에 대한 사실성 여부가 관건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II 장에서는 유예지의 각주 ‘自二章以下與元弄以下全’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농엽의 형성에 대한 견해를 검토하고자 한다.

古樂譜 가운데에는 서로 같은 선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악보로 기보하지 않고 각주로써 대신하여 나타낸 것이 있다. 그런데 고악보에 보이는 동일한 선율에 대한 각주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동질의 것이냐 하는 데에 再考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고악보에서는 선율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그 선율이 유사한 악곡은 경우에 따라서 일일이 악보로 기보하지 않고 주로써 대신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江外琴譜」의 啓眠樂時調(현행 계락)의 “三章以下並與啓弄同”이라고 제시한 각주의 경우, 그 해당 선율을 서로 비교해 본 결과 계락 3장 이하와 평통(啓弄) 3장 이하의 선율이 완벽하게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악보에 보이는 동선율에 대한 각주는 관련 악곡들간의 상호관련을 나타내는 측면이 있는 반면, 선율 비교를 통한 면밀한 검토없이 각주에서 나타내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자칫 오류를 범할 소지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주의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이러한 과정은 각주의 설명을 토대로 어떠한 악곡의 형성을 논의하는 데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실증적인 선율 비교를 통해서 도출되는 악곡들간의 관련양상으로써 농엽의 형성과정을 살피고자 하는 본고의 접근방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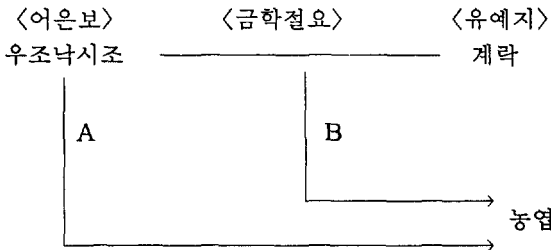
먼저 여기서 유예지 界三葉의 각주 “自二章以下與元弄以全”에 대한 사실성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위의 각주는 계삼엽 2장 이하와 元弄(弄葉) 2장 이하의 선율이 동일한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농엽 2장 이하의 선율이 계삼엽에서 파생된 것으로 속단할 여지를 주고 있다. 만일 界三葉 2장 이하와 元弄 2장 이하의 선율이 동일하다는 각주의 내용이 사실성이 결여된 것이라면, 유예지의 각주 내용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실제로 界三葉 2장 이하의 선율이 弄葉 2장 이하와 동일한지에 대한 검토 과정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두 곡의 선율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예지를 포함한 그 이전의 고악보에는 삼수대엽의 악보 전곡을 수록

한 것이 거의 없고 대부분 2장까지만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를 검증하기 위한 선율의 비교는 부득이 삼수대엽 전곡의 악보를 구비한 것으로서 유예지에 수록된 악곡과 비교적 선율이 유사한 「三竹琴譜」와의 비교를 통해서 그 관계를 살펴볼 수 밖에 없다. 물론 유예지 이후 삼죽금보에 이르는 동안 그 선율에는 다소 변화가 있지만 그러한 변화가 선율 자체의 골격을 바꾸는 심한 굴절을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漁隱譜 - 琴學切要 - 三竹琴譜로 이어지는 계락의 선율과, 遊藝志 - 三竹琴譜로 이어지는 卍弄의 선율은 대체로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三竹琴譜」 삼수대엽 2장 이하의 선율과 평릉 2장 이하의 선율을 비교해 보면 두 곡의 2장 이하의 선율은 서로 달라서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sup>4)</sup> 따라서 유예지의 “自二章以下與元弄以全” 각주는 사실성이 결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엽 2장 이하의 선율이 삼수대엽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江外琴譜」에 보이는 계락과 평릉의 동일선율에 대한 각주의 내용이 사실에 근접한 것임이 밝혀진다면, 농엽이 漁隱譜의 우조낙시조를 근간으로 해서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본고의 접근방식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 Ⅲ. 농엽의 형성 시기

우조낙시조로부터 농엽이 형성되는 시기는 <표 1>에서와 같이 A와 B 두 가지 경우로 상정할 수 있다. A는 어은보 무렵 우조낙시조로부터 농엽이 형성되는 시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B는 A보다 후대의 시기 즉, 漁隱譜에서 琴學切要, 遊藝志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농엽이 형성되는 시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표 1> 농엽의 형성시기




4) 농엽과 삼수대엽의 선율 비교는 IV장 선율 비교를 참조할 것


이와 같이 두 가지의 경우로 상정하는 것은 아래의 <악보 1>에서와 같이 농엽의 선율은 어은보의 우조낙시조에 가까운 경우가 있는 반면, <악보 2>에서와 같이 어은보보다 연대가 후대인 금학절요의 계면조낙시조에 가까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의 경우 중 농엽이 형성되는 시기는 농엽의 선율을 어은보의 우조낙시조와 금학절요의 계면조낙시조에 각각 비교하여 그 중 선율의 일치가 좀더 잘 이루어지는 쪽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악보 1> 어은보 우조낙시조 · 금학절요 계면낙시조와 유예지 농엽 2장 초두 선율


우조낙시조



금학절요 계면조낙시조



농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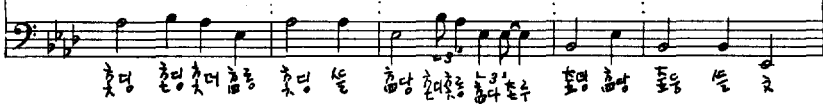


<악보 2> 어은보 우조낙시조 · 금학절요 계면낙시조와 유예지 농엽 2장 초두 선율

우조낙시조



금학절요 계면조낙시조



농엽



위의 <악보 1>, <악보 2> 중에서 농엽의 선율이 전체적으로 잘맞는 것은 <악보 2>이다. 이것은 농엽의 선율이 유예지 무렵(금학절요, 강의금보 포함)의 계락보다 어은보의 우조낙시조와 좀더 잘맞는 것을 뜻하며 농엽이 이미 어은보 무렵에 우조낙시조로부터 형성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B의 경우에 해당되는 예 즉, 농엽의 선율이 우조낙시조보다 금학절요, 유예지의 계락에 좀더 가까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농엽의 형성과정을 B의 시기로 파악하기에는 그 해당되는 예가 A를 대신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율변화에 따른 영향 관계에 일관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는 위의 두 가지 경우 중 B보다는 A쪽이 타당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A의 과정으로써 농엽의 형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 IV. 선율 비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遊藝志」의 弄葉은 「漁隱譜」의 羽調樂時調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 그리고 농엽이 우조낙시조와 다른 부분은 삭대엽의 선율과 부분적으로 같다. IV장에서는 이러한 선율상의 상호 동이관계를 통해서 농엽이 형성되는 윤곽을 드러내기 위하여 어은보의 우조낙시조와 유예지 농엽 및 삭대엽의 선율을 비교하고자 한다.

선율의 비교는 먼저 우조낙시조와 농엽을 비교한 다음, 농엽의 형성에 대한 삭대엽의 관여를 살펴 보기 위하여 농엽과 삭대엽의 선율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비교대상의 악보는 어은보의 우조낙시조와 유예지의 농엽이 중심이 되며 삭대엽과의 비교를 위하여 「遊藝志」의 界初葉, 界二葉, 界三葉 그리고 「三竹琴譜」의 界面 三數大葉 및 驢耳를 택하였다. 유예지의 계초엽, 계이엽, 삼죽금보의 삼수대엽과 소이를 택한 이유는 유예지의 계초엽, 계이엽이 유예지 이전의 어떠한 고악보보다 해당 악곡의 선율이 비교적 충실하게 수록되어 있어 농엽과의 비교가 용이하다는 점과 함께 김영욱의 논문에서 농엽의 형성에 대한 고찰이 유예지의 삭대엽 악보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 논의되는 바와 아울러 비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삼죽금보의 계면 삼수대엽과 소이를 택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죽금보 이전의 고악보 가운데 삼수대엽의 악보 전곡을 수록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II장 참조).

가곡의 선율은 시대에 따라 다소 변한다. 따라서 우조낙시조로부터 농엽이 파생되는 과정에서도 농엽은 어은보에서 유예지로 이르는 과정에서 생기는 계락의 선율변화

에 영향 받았을 개연성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은보 이후 금학절요, 강의금보, 유예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선율 변화를 농업이 수용하는 형태를 살펴 보았으나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조낙시조로부터 농업이 배태되는 과정에서 우조낙시조 자체의 선율 변화에 대한 농업의 영향관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논외로 한다.

그리고 어은보의 우조낙시조와 유예지 농업과의 선율 관계는 비교적 특정 시기에 해당하지만, 그 주된 선율의 골격은 유예지 이후의 평통과 계락에서도 큰 변화없이 대체로 유지된다(말미 참고악보 참조). 이 점은 본고에서 논의되는 농업과 우조낙시조의 선율 관계가 당시에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과 우조낙시조의 동일한 부분은 유예지 이후에도 대체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유예지 이후의 평통과 계락의 선율 관계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본문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선율의 비교는 장별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삼죽금보의 악구나뉘임 방식대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대여음은 어은보의 우조낙시조와 유예지 농업의 경우에는 5장 뒤에 위치하지만, 현행에서는 초장 앞으로 옮겨지는 위치 변화가 생겼고 그 선율 구성에서 농업은 대여음이 3장과 중여음에 해당하는 선율과 동일한 반면, 우조낙시조는 대여음의 선율이 3장과 중여음에 해당하는 선율과 다른 형태로 되어 있어 그 선율 구성이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는 관계로 선율비교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sup>5)</sup>

## 1. 初章 初頭

농업의 초장 초두의 선율은 우조낙시조와 많은 부분에서 다른 반면 <악보 1>에서와 같이 유예지 계초엽의 출현음과 유사하다. 그러나 비록 농업과 계초엽은 출현음 및 그 후반(文 兩淸부분) 선율이 유사하지만, 전반의 선율선은 농업과 계초엽이 서로 다른 관계로 농업이 단순히 계초엽의 선율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농업 전반의 선율은 출현음의 측면에서는 계초엽과 가깝지만 선율선의 측면에서는 우조낙시조와 가깝다. 이것은 농업 초장 초두 전반의 선율 형성이 계초엽의 출현음으로써 우조낙시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한 까닭에 농업

5) 유예지 농업의 대여음은 5장 뒤에 위치하였으나 현행에서는 그 선율이 그대로 초장앞으로 옮겨졌다. 어은보의 우조낙시조는 대여음의 위치변화가 농업과 같지만, 선율이 현행과 맞지 않는다. 황준연 '가곡의 여음' 「민족음악」(서울대학교 음악대학부설 동양음악학연구소, 1977) 창간호 pp. 117-120, 황준연 '삭대엽의 형식' 「한국음악학논집」(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pp. 122-123 참조.







농엽 초장 이두의 형성은 전반은 계초엽을, 그 후반은 계삼엽의 음고를 취하여 우조 낙시조에 대응시켜 이루어졌다 하겠다.

### 3. 二章 初頭

우조낙시조, 농엽의 2장 초두 선율은 거의 같고 <6>, <7> 두 곳만이 다르다. 이렇게 서로 유사한 두 곡의 2장 초두의 선율은 삭대엽 1, 2, 3<sup>7)</sup>과 달라서 농엽 2장 초두의 선율이 삭대엽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엽 2장 이하가 계삼엽 2장 이하의 선율에서 나온 것으로 본 김영옥의 견해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다. 농엽의 선율이 우조낙시조와 다른 부분을 살펴 보면, <6>에서 농엽은 우조낙시조의 方七 대신 方六을 취하는 점에서 다르고 <7>에서는 우조낙시조 方六-大七 대신 大五-方四를 취한 점에서 다르다.

<악보 5> 우조낙시조 · 농엽의 2장 초두 선율

우조낙시조

농엽

출소 소디 소디 흥동 흥동 흥동 소디 흥동  
 흥동 흥동 흥동 흥동 흥동 흥동 흥동 흥동

### 4. 二章 二頭

2장 이두 역시 2장 초두와 마찬가지로 우조낙시조와 농엽 두 곡의 선율은 일부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그 나머지 선율은 서로 같다. 또한 2장 이두의 종지 선율은 농엽과 우조낙시조는 물론이거니와 삭대엽 1, 2, 3과도 거의 동일하다. 이와 같이 유사한 선율로 되어 있는 2장 이두의 종지 선율을 어느 특정곡의 고유한 선율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농엽 2장 이두의 선율 형성은 두 가지의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우조낙시조의 변주로 보는 것이고, 둘째는 삭대엽의 변주로 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7) 이후부터 삭대엽 1은 「유예지」의 계초엽을, 삭대엽 2는 「유예지」의 계이엽을 그리고 삭대엽 3은 「삼죽금보」의 계면 삼수대엽과 소이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됨.







<11>에서 농염은 음고면에서는 우조낙시조의 方七와는 다른 方六라는 차이를 보이지만, 구음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우조낙시조가 금학절요에 와서 方六으로 바뀌는 선을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예지, 강외금보에 이르러 이미 두 곡의 중여음은 완전히 같게 되며(말미 <참고악보> 참조) 이렇게 동일한 선율은 「방산한씨금보」에서 계락의 중여음을 기보하지 않고 “中念은 以上 界弄 中念으로 同”이라는 설명으로써 대신하게 되며 현행에서도 두 곡의 중여음은 똑같기 때문이다.

## 8. 四章 初頭

농염 4장 초두는 우조낙시조와 같이 7패로 시작하며 그 선율 형태가 유사하다. 4장 초두에서 7패로 올려 타는 것은 농염, 우조낙시조 뿐만 아니라 삭대엽 1, 2, 3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삭대엽 1, 2, 3의 선율은 농염, 우조낙시조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농염 4장 초두의 선율 형성은 우조낙시조의 선율을 약간 변형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삭대엽과는 무관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12>에서 농염은 우조낙시조의 선율을 변주한 것으로 해석된다.

### <악보 10> 우조낙시조 · 농염 4장 초두 선율

우조낙시조  
후스 소더후로 소스 소더 후로 후디 후로

농염  
후스 후로 후로 후로 후로 후로 후로

<12>

## 9. 四章 二頭

4장 이두에서 농염은 우조낙시조의 선율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반면, 삭대엽 2, 3과는 부분적으로 그 선율이 유사하다. 이와 같은 선율상의 동이관계로부터 농염 4장 이두의 선율이 우조낙시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삭대엽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농염은 4장 이두의 선율을 우조낙시조에서 취하지 않고 삭대엽 2, 3







<악보 13> 우조낙시조 · 농업 식대엽 1·2, 5장 이두 선율

우조낙시조

농업

유예지  
계초엽

유예지  
계이엽

<17>에서 농염은 우조낙시조의 方七-方四 대신 方六으로 하고 탄법을 ‘짜랭’으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조낙시조의 ‘方七스’를 ‘딩因’으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5장 이두의 두 곡의 서로 부분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두 곡의 차이를 구성하는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튜계통의 악곡으로서 가장 처음 고악보에 보이는 遊藝志의 弄葉은, 漁隱譜의 羽調樂時調의 선율을 근간으로 하고 거기에 삭대엽 1, 2, 3의 선율을 부분적으로 차용하여 형성된 악곡이다.

지금까지 비교 설명한 우조낙시조, 농염, 삭대엽의 선율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우조낙시조 · 농염 · 삭대엽의 선율 비교

초	초두	우	7박	
		농 삭	삭 1과 유사	삭 1, 2와 유사
장	이두	우	6박	
		농 삭	삭 1과 유사	삭 3과 유사
이	초두	우		
		농		
장	이두	우		
		농		
삼	일각	우		
		농		
장	이두	우		
		농		
중	여	우		
		농		
사	초두	우		
		농		
장	이두	우	9박	
		농 삭	삭 3과 유사	삭 2와 유사
오	일각	우		
		농		
장	이두	우		
		동		

(는 우조낙시조와 농염의 선율이 유사한 부분을 나타낸 것)

## V. 맺음말

「유예지」 소재 弄葉은 그 보다 앞서 출현한 「어은보」의 羽調樂時調의 선율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 특히 3장, 중여음, 5장의 선율은 일부만 다를 뿐 두 곡의 선율은 거의 같다. 이러한 공통 선율은 농엽의 선율 형성이 어은보 우조낙시조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닌다. 한편 농엽의 선율이 어은보의 우조낙시조와 다른 경우 여진대 농엽 초장 초두, 이두와 4장 이두에서는 그 선율이 삭대엽과 유사한데, 이것은 농엽이 우조낙시조와의 변별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삭대엽의 선율을 취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농엽은 우조낙시조나 삭대엽의 선율을 취하여 선율화 할때, 대부분의 경우 머리 선율에 변화를 주고 그 이하의 선율은 거의 그대로 사용되는 특징을 보인다.

유예지 무렵에 처음 등장하는 농엽은 어은보의 우조낙시조의 선율을 토대로 하고 그 위에 삭대엽 1, 2, 3의 선율을 부분적으로 수용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농엽의 선율이 구성된 것은 삭대엽과 계락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1. 논 저

- 김경희, 「어은보 소재 우조낙시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김영옥, 「유예지 소재 농엽에 따른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김우진, 「가곡 계면조의 룡과 락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황준연, 「가곡의 여음」 「민족음악」 (서울대 음대 동양음악연구소), 1997.
- \_\_\_\_\_, 「삭대엽의 형식」 「한국음악학논문집」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소), 1982.

### 2. 악 보

- 「어은보」, 한국음악학자료총서 권 17
- 「유예지」, 서울 한국국악학회 1979, 한국음악학자료총서 권 15
- 「강의금보」, 한국음악학자료총서 권 19
- 「금학절요」, 제록스본
- 「삼죽금보」, 한국음악학자료총서 권 2
- 「방산한씨금보」, 한국음악학자료총서 권 14

〈참고악보〉 계락·평릉의 시대별 선율 비교

	初章 初頭	初章 二頭
어은보 우조낙시조 (계락)		
	흡스    흥동    흡스    흥드    흥 흥당    소드    흥림    흥동	
유예지 농업 (평릉)		
	당훈    당훈    당훈    당훈    흥 흥    흥    흥    흥    흥	

〈유예지〉

유예지 금학절요 (계락)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흥흥	
강의금보 계면조농가 (평릉)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흥흥	

삼죽금보 계면낙시조 (계락)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흥흥	
삼죽금보 계면조농 (평릉)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흥흥	

현행 (계락)		
현행 (평릉)		



二章 初頭

二章 二頭

어은보  
(계락)

유예지  
(평풍)

유·금학  
(계락)

강외금보  
(평풍)

삼죽금보  
(계락)

삼죽금보  
(평풍)

현행  
(계락)

현행  
(평풍)

< 금학절요 >

훈스    슌    슌디    훈동    훈    훈동    슌디    훈루    훈딩    훈동    훈다    슌당

스루    슌    딩    당    훈    당    당    당    슌    슌    슌    딩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기    기    기    기    다    루    등    당    등    슌    당    당

기    기    기    기    기    기    당    등    당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三章 二頭

어은보 (계락)

유예지 (평통)

유·금화 (계락)

강의금보 (평통)

삼죽금보 (계락)

삼죽금보 (평통)

현행 (계락)

현행 (평통)















어은보 (계락)

유예지 (평동)

上 二 下 清

上 二 清 清 清

유·금하 (계락)

강외금보 (평동)

上 二 下 武

上 二 清 雨 清

삼죽금보 (계락)

삼죽금보 (평동)

上 二 清 雨 清

上 二 清 雨 清

현행 (계락)

현행 (평동)